

5월 전국은 연등 물결이 '넘실'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 전국 봉축행사 다채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봉축 행사 일정들이 속속 집계되고 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오는 5월 7일 '시청 앞 점등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봉축 일정에 돌입한다. 15일부터 29일까지는 청계천에서 전통등전시회가 열리며, 봉은사에서 18일부터 28일까지 전통등전시가 진행된다.

연등회 연등축제는 19, 20일 양일간 열린다. 동국대와 종로 일대에서 봉행되는 이번 연등회는 19일에는 연등법회와 연등행렬이, 20일에는 불교문화마당과 연등놀이로 꾸며진다.

전국 사찰들은 대부분 13~20일 사이 점등식을 열고 공연, 기념법회 등 봉축행사를 진행한다. 서울 종로 조계사(주지 토진)는 7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효어르신축제와 14일에는 관불의식을 봉행한다. 전북 포교사단은 12일 전주 덕진공원에서 '전북어린이 큰잔치'를 열고 가족간 화합을 도모한다.

호남교구본사협의회는 8, 15, 22일 세차례에 걸쳐 광주KT정보센터에서 '2012 빛고를 선교유법회'를 봉행하며, 대구불교총연합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는 '형형색색 달구벌놀이'를 연다. 불도(佛都) 부산도 4일 부산역 광장에서 봉축점등식을 갖고 20일에는 구덕운동장에서 제등행렬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봉축 행사에 들어간다.

봉축위원회는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사회 곳곳에 두루 비출 수 있도록은 불자가 노력해 가지"고 당부했다.

신종일 · 노덕현 기자

■ 불기 2556년 전국 봉축 일정

지역	종양	일시	내용	장소
서울	봉축위원회	5월 18~28일	전통등전시 연등행렬 및 어울림마당 전통문화마당 외국인등만들기대회 연등놀이 봉축법요식	봉은사 동국대, 종로일대
	조계사	5월 7일	효어르신축제 동자승사발식 관불의식 나눔잔치	전국사찰
	강남 수원	5월 10일	강남불자대회	조계사 조계사 조계사 우정국
	시암연합회	5월 10일	시암불자대회	봉은사 화성시청 화성행궁광장 수원시내
경기	남양주 용인	5월 21일	점등식	남양주시청 용인통일공원
	부천시 용인시불교연합회	5월 8일	점등식	용인통일공원
	인천	5월 28일	점등식, 제등행렬	인천종합운동장 인천시청 앞 광장
	속초	5월 4일	점등식 제등행렬	속초소방서 앞 광장 속초시내 신촌사극락보전
강원	양양	4월 30일	점등식	양양시내 초등학교
	평창	5월 21일	점등식	평창 진부 고수부지
	대전	5월 15일	점등식	서대전시민공원 서대전시민공원 대전 일대
	충주	5월 12일	연등회, 봉축법회	충주 호암체육관
전북	전안	5월 19일	점등식, 제등행렬	전안중학교
	전주	5월 12일	전북어린이 큰잔치	전주 덕진공원
	전북봉축위원회	5월 15일	필만대장경 공연 연등축제	소리문화의전당 전주시청 35사단 영내 세병호
	익산	5월 20일	연등축제	익산 중앙체육공원
전남	순천	5월 6일	연등문화제	동천수변공원
	광주	5월 9일	봉축법회 점등식	광주시청
	조계종승보회	5월 25일	봉축법요식, 제등행렬	광주공원 야구장
	호남교구본사협의회	5월 8, 15, 22일	2012빛고를선교유법회	KT정보센터
경북	대구	5월 17~19일	형형색색달구벌놀이	두류공원 야구장 구채보성공원
	경북	5월 5일	점등식	두류공원 야구장
	경북	5월 17일	관동놀이	두류공원 야구장
	경북	5월 19일	연등회	두류공원 야구장
경남	부산	5월 4일	점등식	부산역광장
	부산	5월 20일	제등행렬	구덕운동장
	제주	5월 6일	제주 점등식	
	제주	5월 12일	서귀포 점등식	서귀포시 일대

北 조불련 봉축행사 참가 불발

"현 정세서 실현 불가능" 19일 회신

남북공동발원문만 채택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초청하겠다는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 이하 민주본)는 "불기2556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남북에서 개최되는 봉축행사에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 대표단 초청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본은 3월 29, 30일 양일간 조 불련과 실무회의와 4월 9일 팩스 전문을 통해 봉축행사 참가를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조불련은 4월 19일 팩스 회신을 통해 "봉축행사 남북 방문과 금강산 신계사 봉 축 법회는 현 정세 하에서는 실현 불가능 하다"고 알려왔다. 다만 부처님오신날 봉

축 남북 공동발원문은 공동 채택하기로 했다.

조불련이 불기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남북불교간 직접 교류 확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남북불교계 간 직접 교류사업이 전면 무산된 것은 현재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볼 때 예상된 수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북한이 23일 사실상 대남 공격을 예고함에 따라 한반도 내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주본은 "이번 봉축행사 초청을 통해 남북불교도가 하나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민족 화해와 남북 관계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며 "앞으로도 남북불교교류 활성화와 민족 평화를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멘토와 함께 답사 여행

동행 문화탐방프로젝트 진행

주5일제를 맞아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한 '문화탐방 프로젝트'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아름다운동행은 4월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공원에서 '우리나라 · 세계문화유산 탐방 & 나의유산만들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창덕궁과 종묘 등으로 첫번째 답사를 나섰다.

동행은 "소의 계층 학생 200명을 모집해 1년 동안 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한다. 삼성에서 2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의사 변호사 대학생 등 멘토 60명이 학생들을 지도해주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주 5일제 수업을 맞아 소외계층 학생들이 좀 더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동행은 수원 화성, 경주 석굴암, 합천 해인사, 안동 하회마을 등의 문화유적지를 매달 탐방한다.

정혜숙 기자



4월 26일 서울 프랑학교에서 열린 묘각사의 '찾아가는 템플스테이'. 참가학생들은 연등 만들기를 체험하며 한국불교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 민주주의에서 불교 역할은?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5월 2일 첫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변화와 전망 다뤄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불교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범안)는 오는 5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사회 변화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올해 첫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대하 상지대 정치학 교수가 '2012년,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진행하고 우희중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와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발제는 순학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민주주의의 정치사회 변화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주제로 진행하며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연구

실장,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스님이 각각 지정토론을 맡았다.

특히 순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종신과 대선, SNS의 확산으로 인한 대중민주주의의 확대 등 우리사회 민주주의의 변화 모습에 따른 불교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불교사회연구소는 그간 '불교와 대통령 이승만', '템플스테이 발전방안', '종단 불교문화콘텐츠사업 활성화방안' 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불교사회연구소는 "향후 종단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은 물론 대사회적에 관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이와 같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이제 템플스테이가 찾아옵니다

관음종 묘각사, 서울 프랑학교 초청 템플스테이

서울 강남 서래마을에 위치한 서울 프랑 학교에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관음종 낙산 묘각사(주지 흥파)는 4월 26일 서울 프랑 학교 초청으로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연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묘각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

그램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에는 프랑 학생 37명과 교사 4명이 동참했으며, 참가자들은 연꽃과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의 의미와 팔각연등을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지 흥파 스님은 "묘각사의 템플스테이 노후유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템플스테이'

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프랑 학교장 발레 씨는 "한국 전통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기쁘고 학생들에게 더 없이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체험에 참가한 재클린(여·9)은 "연꽃잎을 하나하나씩 붙여가는 작업은 너무 재미있었다"고 말했으며, 다베스(남·9)도 "스님과 봉사자 선생님들이 친절해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도봉사 여 스님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 템플스테이를 체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122호 지정 YeonDeungHoe 燃燈會

연 등 회

불기 2556(2012)년 5월 18일(금) ~ 20일(일)

- 5월 7일(월) 시청앞점등식
- 5월 18일(금) 전통등전시회
- 5월 19일(토) 어울림마당
 - 연등행렬
 - 회향한마당
- 5월 20일(일) 전통문화마당
 - 공연마당
 - 연등놀이